儒生諸氏

에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hursday, Nov. 5th, 1925. THE UNMANNERY TIGER. from "Fairy Tales of Many Countries."

"Mountain Uncle," was the name given by the villagers to a splendid striped tiger that lived among the highlands of Kang Won, the long province which from its cliffs overlooks the Sea of Japan. Hunters rarely saw him, and among his fellowtigers the Mountain Uncle boasted that, though often fired at, he had never been wounded; while as for traps—he knew all about them and laughed at the devices used by man to catch him and to strip him of his coveted skin, In summer he kept among the high hills and lived on fat deer. In winter, when heavy snow, biting winds, and terrible cold kept human beings within doors, old Mountain Uncle would sally forth to the villages. There he would prowl around the stables the cattle enclosures, or the pig pens, in hopes of clawing and dragging out a young donkey, a fat calf, or a suckling pig. Too often he succeeded, so that he was the terror of the

succeeded, so that he was the terror of the country for leagues around.

One day in autumn, Mountain Uncle was rambling among the lower hills. Though far from any village, he kept a sharp lookout for traps and hunters, but none seemed to be near. He was very hungry and hoped for

But on coming round a great rock, Mountoin Uncle suddenly saw in his path some feet ahead, as he thought, a big tiger like himself.

He slopped, twiched his tail most ferociously as a challenge, showed fight by growling, and got ready to spring. What was his surprise to see the other tiger doing exactly the same things. Mountain Uncle was sure there would be a terrible struggle, but this was just what he wanted, for he expected to win.

> 호령이 이야기 (-) 建定度

會黨은 全國

新聞書 上 10年 新聞書 上 10年 新聞書 上 10年 新聞書 日 10日 一、曾寧邑内の50日 12日 13 第 13 日 一、曾寧邑内の50日 12日 13 第 13 日 一、曾寧青年會の 4日 11十一日 12 刊 三開立い日 12 日 三加 12 日

を 記

平北龍川郡楊市張済隆院の分号 平 額 寮 券 發 行

· 割削

校樂既の解 分七英 帝不時十七元 市振列九昨山元 の対車日今 の対車日今

の 上野 世 より 町 階

고講覧士 と演者의

回臨年

沙等青年大會 互演沙等青年大會 互演沙等青年 | 1、学師夜學開催의件 | 1、学師夜學開催의件 | 1、学師夜學開催의件 | 1、学師夜學開催의件 | 1、学師夜學開催의件 | 1、学師夜學開催의件 | 1、学師夜學問

者号のプロッ野健舎をステントで特別型米の岩の外に十月二十九型米の岩の外に十月二十九型米の岩の米の岩崎

**岭七午下日五月一十** 

統鏡萬町京邱大

回

成者的 100 元 1

申申编騎

後生加援進資

日所所日

○『司司』第一等 鳥致院 小 學校 第三等 漢成公養校 第三等 海校(鳥致院) 等 海野校十週紀念 全北茁楠公立 管 海野校十週年紀念 ○三同校祠 整 (倉) 公 (内) 公 (内) 二百餘 (利) 提題行列 三大線 (大) 2 (大) 2 (大) 2 (大) 2 (大) 3 (大) 4 (大) 3 (大) 4 (大

権級役の對うのに一般會員의方の對方の一日以上式出役23事方の對方の一一月末日外入の沒數任分の十一月末日外入の沒數任分の十一月末日外入の沒數任分の十一月末日外入の沒數任分の十一月末日外入の沒數分別之首少

関策六個月以來成績の叫字良好 可能付한中 三月來十二月末日外 の配付한中 三月來十二月末日外 可配付한中 三月來十二月末日外

山青年會의 秋期定期總會出 用三十一日同會機上可以委 南忠熙氏司會下列開會村上可以委 南忠熙氏司會下列開會村上可以委 南虚站 崔鍾舉 南和豪 斯度 李啓心 李卿 (元 两府) 所合의 東實生產改良斗服途到開拓 中華的計中一月七日早已三日 即商品陳列所の以果實品評 開催自己の라口라(平聚) 

八案 号替出

列對

計

沙谷夜學復建

中立(大邱)

「中立(大邱)

「中立(大田)

「中

許別を

一、常務報酬の野む件の来回で期總會外の保留智事を別總會外の保留智事を別總會外の保留智事を別總會外の保留智事を別總會外の保留智事を別總會外の保留智事を別というにより、

1大阪電信 155年間 155年間

商協議1000年 安城青年臨總 安城青年 安城青年 100 野るの関いの関いの関いの関いの関いの関いの関いの関いのでは、関いている。

3年日中(安城) での設設工事費に八十九年 で可能圏(本年上中期外7年日)

双支拂

◇京城等嶼青年總會 동일백칠십칠번디에잇는지정로 동정면히(京城等幽青年會)에서 의 일곱

(조건 ) 한 한 대 전 (조 ) 한 대 (조 ) 한 대 전 (조 ) 한 대

그때에는 반찬가가하고 쌀가 하되나만나게되면 되겠지요나하는 반찬가가에서 딱하인 되생곳(생곳우성도

물목하 교육소 대會學和會學面企生洞) 사십 디오상흥(吳相乙)( 원)이지 열말의 오후일곱시 경 관하당1

**六歲小** 

『온참별소리를다하시는군의 며봉선의도어이가입다는듯이다 이 80준이는시계를보더니 이 10분의 새로게시로군나의 하며

『그다유하니 무현하실레야요

가 또입을 버렸다 저이후에는 무의하실린다

박인이수하아 가는데 두보다는 여전히 안거서움이웃이쪽을

婆强姦未遂 及的事并是分

모한호자기의몸기정관인것을기 되나하야 지방면으로 편리를도 을 레모하라하매 이를단치채고 경찰이 철롱하기전에 비빔이리 대로하라하며 이를단치채고 기본에게 비롱하야 충국던진의

작지에 기능한바이니와 함문학 방에의하면 주병원으로 지름투고 소녀 (少年) 한국일도 지름투고 소녀 (少年) 바메리던 소녀유인단장(少女勝 기뻐長) 학양 부장별리(平壤附長 (기뻐분) 학양 (李庭鼓)(불)과장 

犯人을上为工

無罪村婦是毆打

胡孙七五客旁的

민보다의 모동의해보지요!

一의역성ミリエ 小兒

一

刺殺

かるという

파는 자녀조차 업무지 얼어하여 기의 주업을닷업시 술어하다 기가 이 의장등자의 한국 다이다이라비 과상 고 되에 무고 다시 도라오지못한 상의 나그 내가되고 마랫슨이 들이보다를 위로하아들사람이

◆ 公長の外不不見を記むむ中日 〈過四日小香本〉

不義의씨를 壓殺하
エ 등 회원은 다수참가하

아니카 무어든지하지요 조부모이나가 무어든지하지요 하고마주인 당시나가 무어든지하지요 기념자의 의사이는 기념자의 의사이는 기념자의 이후로 도일 한 기 기 의 보고 하고마 이후로 도일 한 기 기 의 보고 하고마 이후로 도일 한 이후로 도일 이후로 된 이후로 지고 일하라면돈이 있어야하게 지고 일하라면돈이 있어야하게 스니카타라면의 말을들이면 가리살라고 돈반다고하는게 아

姦夫 是合力歐打 고등하다기침혹히! 이라티라(사리윤)

보아나라 부상한 아동이 있었스 나고약(育藥)한지아부처주는사람 이 인성승으로 신제소자는 교의 (校論)이 나고일반이불편을로 하 맛다 데라(보장)

西門署高等刑事

상 하여 지난삼십일일 새벽한시경 한 가진 장도(與路)과 식도(食刀)를 가지 강도(與路)한명이 달려들 가 이 그수차(水車)안에서 일하고 이 그수차(水車)안에서 일하고 이 그는 사던경(車梯京)(亞) 두사람이 의면부를 당하여가지고 어때로 하다 하다 한 의면부를 당하여가지고 어때로 하다 하다 한 의면부를 당하여가지고 어때로 하다 하다 한 이 의 한 한 이라는 다 하다 한 이라는 당하여가지고 어때로 한 기가 하나는 당하여가지고 어때로 한 기가 되는 당하여가지고 어때로 한 기가 되는 당하여가지고 어때로 한 기가 되는 당하여가지고 어때로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있다면 한다고 있다면

라연구를 시작해보라라고 결심 하였다 그리하면 위선원반속에 서 생돈을보내서 밥사먹는손해 부러 덜리는것도 과어이라는다 집도잇셨다 그는마참내 춘보기

이 복잡한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길을건너가고 건너오며 등으로 원산있다는 역동일 분분

원남 보청군공의(全南濱城郡 소 왕) 교 김양하아학교 교의(校 왕) 교 김양하아학교 교의(校 왕의 진봉한 박) 의 교리의(校 리노동학교 추계 운동 당일 지구 호반(救觀...)의 설비도 엄청순 보아나라 부상한 아동기이첫스

川雨古邑里)の即 이십이번디에 東)即化십번디 (美永奎)는 동리(阿里)에바십번디 (小는장기복(張平二)장제 에게 (東秀도록맛고 바금 병선 기사신 등이라는데 그림캐된 내용의 하수 원리구라자의 한사람이상은

鑛山≅强盜

校醫で對む不平

우서라